

올림픽 훈련 계획·메달 목표 '새판 짜기'

대한체육회 "올림픽 연기 선수들 악영향 없을 것" 선수 재입촌·종목별 예선 일정 나오면 '준비 모드'

코로나19로 연기된 2020 도쿄올림픽의 새로운 개막일이 2021년 7월 23일로 확정됨에 따라 대한체육회도 새 판을 짤다.

1일 현재 내년 도쿄올림픽 개막까지 남은 날은 478일이다. 1년이 더 남았다.

체육회는 종목별 국제연맹(IF)이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협의로 3주 이내에 올림픽 출전권 예선 일정을 확정하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 재입촌하면 훈련 계획과 메달 목표치 등을 재조정한다.

현재 체육회가 올림픽 연기 발표

후 진천선수촌 '휴촌'에 들어가면서 선수들과 지도자들은 3월 26~27일 이틀에 걸쳐 선수촌에서 잠시 나와 자택 또는 소속팀에서 휴식과 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체육회의 한 관계자는 "올림픽 대비 전체 계획은 올림픽 출전권 예선 일정이 나와야 세울 수 있다"며 "체육회는 선수들의 재입촌 후 지도자 간담회를 열어 종목별 훈련 일정을 취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올림픽 1년 연기가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크게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체육회

에선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다중 이용 시설인 훈련장이 닫힌 바람에 연습할 공간을 찾지 못하는 미국과 유럽 지역 선수들과 달리 우리나라엔 '선수촌'이라는 대표 선수들을 위한 최첨단 훈련 집약 시설이 있어 있다.

이 덕분에 우리 선수들이 다시 '올림픽 준비 모드'로 돌아가는데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고 체육계는 예상한다.

체육회는 코로나19로 선수촌에 발이 묶이고 불투명한 올림픽 일정 탓에 적지 않은 스포츠레슬을 받았던 선수들이 3주간의 휴식과 재입촌을 위한 2주간의 자가 격리 절차를 마치고 다시 선수촌에 오면 새 기분으로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리라 기대한다.

도쿄올림픽 메달 목표치도 1년 연기로 약간의 달라질 수 있다.

체육회는 올해 도쿄올림픽이 열렸다면 금메달 최대 10개를 따내 종합 10위 이내에 오르겠다는 '10-10'을 목표로 내세웠다.

금메달 전략 종목은 세계적인 실력을 뽐내는 양궁, 펜싱, 태권도, 여자 골프, 유도, 사격 등이다. 야구, 축구, 남자 기체체조, 여자 배구도 메달 기대 종목이다.

체육회 측은 "배태랑 선수들이 내년까지 지금의 기량을 유지할지, 이들을 대신할 젊은 선수들이 얼마만큼 성장할지에 따라 메달 목표가 정해진다"며 "올림픽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를 각 종목 선수들이 어떻게 넘기느냐가 중요하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버리와의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에서 70여m를 드리블하며 수비수 6명을 제친 뒤 득점에 성공했다. 연합뉴스

손흥민, 메시 선정 '챔스 최고 25인' 포함

32경기 16골 진가 인정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3·FC바르셀로나)도 손흥민(28·토트넘 홋스퍼)의 진가를 인정했다.

영국 매체 데일리스타는 메시가 미국의 스포츠 트레이딩 카드 제조사인 톱스와 함께 올 2019-2020시즌 유럽 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카드를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메시가 직접 뽑은 25명의 현역 최고 선수 중 손흥민이 토트넘 동료 해리 케인과 함께 당당히 이름을 올렸다.

토트넘은 올 시즌 챔피언스리그에서 16강 탈락했지만, 손흥민은 6경기에서 5골 2도움을 올리며 이름을 올렸다.

코로나19로 유럽 프로축구가 멈춰 서기 전까지 올 시즌 참가 중인 모든

대회에서 32경기에 출전해 16골을 터뜨렸다.

이밖에 세계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피르질 판데이크,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공동 득점왕인 무함마드 살라흐와 사디오 마네, 트랜트 알렉산더-아널드 등 리버풀 선수 4명이 메시의 선택을 받았다.

또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 도움 선두(17도움)인 케빈 데브라위너, 골잡이 세르히오 아케로 등 맨체스터 시티 선수들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영국을 떠나 한국으로 돌아온 손흥민은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자가격리 2주 방침에 따라 집 안에 머물며 구단이 제공하는 원격 훈련 프로그램을 소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리그 대비하는 키움 히어로즈 1일 오후 서울 구로구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 히어로즈 선수들이 훈련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플레이오프 백지화

대한축구협회, 오는 6월 개최 일정 변경기로 중국협회·AFC와 일정 협의해 최적 시기 결정

대한축구협회가 코로나19 때문에 6월로 옮겨진 중국과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플레이오프(PO) 일정을 올해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로 다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축구협회 고위 관계자는 1일 "도쿄올림픽이 1년 연기된 만큼 여자축

구 PO 일정을 다시 바꾸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라며 "6월 PO 일정은 도쿄올림픽이 올해 열린다는 것을 전제로 결정된 만큼 백지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도쿄올림픽이 연기되면서 중국축구협회, 아시아축구연맹(AFC)

과 새로운 일정을 놓고 협의를 해왔다"라며 "1순위는 내년 상반기, 2순위는 올해 하반기"라고 설명했다.

도쿄올림픽 여자축구 PO는 애초 2월에 예정됐지만 코로나19 때문에 한국과 중국에서 '홈 앤드 어웨이' 경기가 불가능해졌고, 국제축구연맹(FIFA)과 AFC가 최종 협의해 6월(4일, 9일)로 연기를 확정했다.

어렵게 결정된 6월 PO 일정은 도쿄올림픽이 7월에 예정대로 개최된

다는 전제에 따라 결정된 날짜다.

하지만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일본 정부가 올해 도쿄올림픽의 1년 연기를 결정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축구협회 관계자는 "6월 PO는 7월 개막하는 올림픽 일정에 맞추기 위한 조치였다"며 "올림픽이 연기된 만큼 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 상황에서 6월에 PO를 치를 이유가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협회, AFC와 새로운 PO 일정을 위해 협의를 하고 있다"라며 "IOC와 FIFA도 선수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만큼 최적의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PGA 투어 시즌 열면 출전 선수 늘린다

5·6월 경기 120명 → 144명 시즌 재개 여전히 불투명

미국프로골프(PGA) 투어가 코로나19 때문에 대회를 열지 못하자 선수들을 위한 대책을 내놨다.

미국의 골프 전문매체 골프채널은 1일(한국시간) PGA 투어가 선수들에게 "시즌이 재개되면 대회 출전 선수를 늘려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메모를 보냈다고 보도했다.

PGA 투어는 이번 시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지방정부의 비상사태 선포로 11개의 대회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이 때문에 중하위권 선수들과 그들의 캐디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PGA 투어는 5월 21일 개막 예정인 찰스 슈와브 챔피언십과 6월 4일 개막 예정인 메모리얼 토너먼트의 출전 선수를 120명에서 144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 밖에 대회에서도 최대한 출전 선수를 늘려 그동안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 선수들에게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시즌이 언제 재개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

6월 11일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막 예정인 RBC 캐나다 오픈은 토론토시의 모임 금지 조치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존 토리 토론토 시장은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예고하며 6월 30일까지 모든 공공 집회를 취소시켰다. 연합뉴스

KBS1	KBS2	MBC	JIBS/SBS	EBS1
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 제주 7:50 인간극장 8:25 아침마당 9:3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0:00 중계방송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1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6:00 걸어서 세계속으로 6:50 생방송 아침이 좋다 8:00 KBS 아침 뉴스타임 9:00 꽃길만 걸어요(재) 9:40 무한리얼 샐러드 10:40 지구촌 뉴스 11:00 KBS청소녀 특선다큐 크네상스의 거장들 11:55 날아라 숲들이 뉴 비기닝(재)	6:00 MBC 뉴스투데이 6:25 MBC 뉴스투데이 7:20 MBC 뉴스투데이 제주 7:50 나쁜 사랑 8:30 TV매거진 해피플러스 9:30 930 MBC 뉴스 9:55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11:00 기본 좋은 날	6:00 모닝와이드 1부 6:25 모닝와이드 2부 7:20 JIBS 뉴스 7:35 모닝와이드 8:35 맛 좀 보실래요 9:10 좋은 아침 10:00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11:00 SBS 뉴스 11:10 열린TV 시청자 세상	7:30 뿌로로와 노래해요 8:00 당동명 유치원 9:40 코로나19 특별 생방송 EBS가 함께 합니다 13:50 특집 애니메이션 점박이 한반도의 공룡1 15:25 애코와 친구들 15:55 꼬마하어로 슈퍼잭 16:10 레인보우 루비 16:40 당동명 친구들 17:45 허풍선이 음악쇼 18:00 생방송 특특! 보니 하나 19:45 자이언트 펭TV
12: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12 13:00 사랑의 가족 13:50 KBS 재능방송센터(재) 14: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4:30 KBS 청소년 특별기획 온드림스쿨 스페셜 15:00 동행 15:05 동행 16: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사시간 17: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17:30 나는 제주	13:00 KBS청소녀 특별기획 특선다큐 더 플래닛 14:00 무엇이든 물어보아요 (재) 15:10 자몽공부채식 위키 2 15:30 TV 유치원 16:00 한 번 다녀왔습니다(재) 17:20 생활의 발견 스페셜 17:30 도토리 V 2 17:45 캐시! 티니핑	12:00 12 MBC 뉴스 12:20 반짝이는 프리채널 12:50 뽀뽀뽀 모두야 놀자 스페셜 13:20 푸라기 식사교실 13:50 2시 뉴스 외전 15:20 헬로키즈 아하 동물탐험대 3 (재) 16:00 기본 좋은 날(재) 17:00 5 MBC 뉴스 17:30 시리즈M 스페셜	12:10 SBS 12 뉴스 12:25 JIBS 뉴스 12:50 전경 TOP10 가요쇼 (재) 14:00 뉴스브리핑 16:00 최강 1교시 17:00 SBS 오 뉴스 17:35 JIBS 뉴스 17:50 선택 2020 제주미래 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토론회 - 서귀포시	7:30 김현정의 뉴스쇼 9:05 그대창가에 김석훈입니다 12:00 CBS 낮종합뉴스 12:05 창랑이 있는 숲길 13:30 생명의 샘 15:00 CBS 뉴스 17:00 시사매거진 제주 18:00 CBS 저녁종합뉴스 18:20 시사시간 21:35 라디오스타 22:05 채신아의 가스펠 아워
18:00 6시 내고향 19:00 KBS 뉴스 7 19:40 한국인의 밤상 20:30 꽃길만 걸어요 21:00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22:00 다크 인사이트 22:50 더 라이브 23:30 KBS교향악단 밀려 23:35 코로나19 통합뉴스룸 23:55 KBS 네트워크 특선 울렷음악	18:00 KBS 경제타임 18:30 2TV 생생정보 19:50 위대한 약속 20:30 꽃길만 걸어요 20:55 제보자들 22:00 여자와 22:35 여자와 23:10 해피투게더	18:30 생방송 오늘 저녁 19:35 MBC 뉴스데스크 20:55 그 남자의 기억법 21:30 그 남자의 기억법 22:05 시리즈M 1부 22:35 시리즈M 2부 23:05 언론4사 초청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제주시 갑	19:50 SBS 8 뉴스 20:35 JIBS 8 뉴스 20:55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1부 21:30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 2부 22:00 맛남의 광장 1부 22:40 맛남의 광장 2부 23:10 맛남의 광장 3부 23:40 접속! 무비월드 스페셜	KCTV 7:00 KCTV 뉴스 8:30 취미로 먹고 산다 10:30 4·15총선 후보자 대담 12:40 배워봐서 관광광주어 13:10 마이넷 금요일은 시즌2 14:30 취미로 먹고 산다 15:30 4·15총선 후보자 대담 17:00 KCTV 뉴스 17:10 판타스틱 특급무비 18:00 일 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지 20:10 KCTV 시청자세상
#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TBN 제주교통방송 제주시 FM 105.5MHz 서귀포시 FM 105.9MHz				
KBS ☎ 064-740-7331 / MBC ☎ 064-740-2432 / JIBS ☎ 064-740-7800 / KCTV ☎ 064-741-7723 / 제주CBS ☎ 064-748-7400				

오늘의 운세 2일

김홍상 지단(호리) 작명역학 원장
경기도 평교원 교수(010-5233-6136)

36년 내 주장대로 행하면 다툼이 생긴다. 48년 자신을 내세우지 말고 동료나 상사를 칭찬하라. 먹을 것이 생긴다. 60년 자녀에게 관심을 갖고 대화를 나누면 좋다. 72년 금전이 새어나가니 지갑 단속이 필요하고 호기심을 자제하라. 84년 정직함이 인정받으니 뒷사람의 충고·조언의 경청이 나를 발전시킨다.

37년 막힌 일이 서서히 풀려나니 조금만 기다려봐도 된다. 49년 자기자신을 명쾌하고 정확히 전하는 것도 용기라 한다. 61년 자녀의 문제로 정신적 충격이 있으니 자녀 관리 철저. 73년 동료의 협조로 일이 해결되나 일시적 현상. 85년 새로운 계획 또는 직업을 감당하고 실천하려고 한다.

38년 변동, 변화가 필요하다. 부족을 채우려고 고민하니 상의할 사람이 필요하다. 50년 음식업이나 요리업이 점차 호전. 62년 때때로 문서운은 좋으나 답보 상태에 갇혀 있다. 74년 부닥이 들어오면 내 힘이 약하니 부탁을 못 들어준다. 정중히 거절. 86년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 밑이 넓어지는 의미가 필요.

39년 건강관리는 꾸준히. 갑작스런 활동이나 무리한 운동은 금물. 51년 의견차이로 큰소리가 들리고 마음 안 아프다. 63년 과욕으로 무리하면 될 일이 성사되지 못하니 계약 또는 매매시 신중을 기하라. 75년 시간이 지나면서 일이 호전되니 계획을 확실하게 준비하라. 87년 부족함을 인지하고 미래 준비로 고민한다.

40년 지출이 발생할 일이 생기고 자녀에 대한 소식이 있다. 52년 직업상 변화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하고 싶어하며 변동수가 온다. 64년 때때로 문서 계약 건은 성사되나 자금력에서 어려움이 올 수 있다. 76년 미혼자에게 희소식. 기혼자는 업무의 이동 변화가 있다. 88년 시험은 유리하나 재물지출이 따른다.

41년 사사로운 감정이나 오해로 언쟁하니 주의. 53년 일이 호전되고 능력이 있으며 자녀와 관계된 일이 소식이다. 65년 돈 문제로 다툼이 생기거나 가족 간 불화 조짐이 보인다. 77년 부모, 시댁에 원사불 문제로 걱정. 안부전화를 드려라. 89년 기다리는 일이 생기니 마음이 답답하고 안정하기가 어렵다.

42년 전문업종은 분주히 바쁘고 거래처나 방문객을 만난다. 54년 자존심을 내세우거나 술 자제가 필요하다. 66년 추진하는 일이나 사업이 지체되고 하자 발생하니 관리감독 철저. 78년 미혼자는 변화가 필요. 기혼자는 득자 또는 기쁨이 찾아온다. 90년 가정에서는 마음이 불편하고 밖에선 기쁨.

43년 문서 이동수가 생기고 이사, 또는 부동산 구입은 서급간에서 이득 있다. 55년 건강증진이 오거나 말 할 수 있게 된다. 67년 의식주의 걱정을 덜고 내가 할 일이 생기고 지시할 일이 생긴다. 79년 말이 많으면 구설이 오니 불필요한 언행을 자제하라. 91년 거창한 계획보다는 현실에 맞는 계획을 세워라.

44년 각종 인허가 계약에 관계된 업종은 순탄하다. 56년 순리대로 원만하게 진행된다. 바쁘고 분주함은 매출이고 이윤이 된다. 68년 집안에서 내가 할 일이 생긴다. 귀가는 일찍 서둘러라. 80년 직업이 필요하고 변화, 변동을 꾀하려고 함. 92년 친구에 대한 지나친 우려와 걱정은 오히려 친구를 멀어지게 한다.

45년 상호 협력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주 만나 협의하고 논의하라. 57년 변화를 추구하거나 직업문제로 이동, 전직을 하는 경우도 있다. 69년 내 주장보다 상대의 말을 먼저 들어주면 일이 순탄하다. 81년 금전적으로 지출이 외모에 투자된다. 93년 내가 먼저 배려하고 격려를 보내면 기분이 화답하다.

46년 시장 상인에게 기쁨이 두 배 증가. 웃으면서 장사하고 배울면 더 큰 이득이 있다. 58년 수습할 일이 생기거나 집안에 근심수가 오니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70년 이동의 변화가 온다. 가정 주부는 취업하려고 동분서주 하기도 한다. 82년 마음이 여유롭지만 취업자는 분주하다. 94년 친구의 기쁜 소식을 접한다.

47년 이사 변동이 생기거나 축하해 줄 일이 있다. 59년 출타할 일이 생기고 직장인은 신용을 중시해야 한다. 71년 상대방과 경쟁사 미워하는 마음보다 정정당당하게 선의의 경쟁을 하라. 83년 친구나 지인의 도움으로 일거리가 생기며 바빠지고 분주하다. 95년 이성간에 다툼이 줄어들고 화합이 필요하다.